

Print ISSN: 1738-3110 / Online ISSN 2093-7717  
<http://dx.doi.org/10.15722/jds.13.9.201509.95>

## The Impact of K-IFRS Adoption on Accounting Conservatism: Focus on Distribution Companies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이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 유통기업들을 중심으로(초기 일시적 적응 현상)

Gil-Kwan Noh(노길관)\*, Dong-Il Kim(김동일)\*\*

Received: August 17, 2015. Revised: September 14, 2015. Accepted: September 15, 2015.

##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of the impact of the mandatory adoption of Korean equivalents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 on accounting quality. K-IFRS uses fair value as a basis of measurement and is characterized by principle-based standards. These characteristics can lead to a decrease in conservatism.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re is a change in the level of conservatism before and after the enforcement of K-IFRS (2007~2014). By comparing 2007 through 2008 and 2013 through 2014 (excluding 2009 to 2012), we test “the temporary adjustment phenomenon” and document an overall decline in the degree of conservatism after the adoption of K-IF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Our sample is comprised of data of all listed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KOSPI) manufacturing distribution companies in Korea from 2007 to 2014, which yields the pooled sample of 4,412 (panel A) and 1,915 (panel B) firm-year observations for hypotheses 1 and 2. In line with recent literature, we adopt the Givoly and Hayn (2000) model, which recomputes the non-operating accruals, excluding two components that are most likely to capture the effect of restructuring activities: special items and gains or losses from discontinued operations. In addition, we also use these variables: SIZE, LEV, INV\_CYCLE, ROA, OWN, and FOR.

**Results** – Our sample period spans 2007 to 2014. This offers evidence on the effect of the mandatory adoption of IFRS on conservatism. Ou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panel A, for mandatory K-IFRS adoption (2011), we do not find any significant evidence of conservatism. We can guess that the “temporary adjustment phenomenon” is the reason that

we do not find significant evidence of conservatism. Second, we investigate panel B from 2009 to 2012. We document an overall decline in the degree of conservatism after the adoption of K-IFRS. We can assume that these results are due to “the temporary adjustment phenomenon.”

**Conclusions** – This study finds that conservatism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IFRS adop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makes the initial effort to elucidate “the temporary adjustment phenomenon” to analyze the effect of K-IFRS on conservative accounting. We argue that K-IFRS are conceptually conservative but that inappropriate application of the conservatism principles is likely to prevent financial reporting from reaching the level of conservatism targeted by the IASB. Overall,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IFRS and can be useful to capital market supervisors who are monitoring the trends of the firms implementing K-IFRS. Additionally, our results inform stakeholders of the potentially negative effect of the greater flexibility permitted by IFRS and/or lack of appropriate enforcement on key dimensions of accounting quality. This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n regulators and standard setters as they review the cost and benefits of IFRS. Our study also sheds light on the importance of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achieving the targeted objectives for improving financial reporting quality.

**Keywords:** Distribution Companies, Nonoperating Accruals, Conservatism, The Temporary Adjustment Phenomenon, IFRS, Mandatory Adoption.

**JEL Classifications:** M40, M41, M48, M49.

## 1. 서론

2007년 3월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 및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 회계기준이 세계적 통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2009년부터 조기적용을 허용하였고, 2011년부터 국내 모든 상장회사의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 Ph.D Cours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Tel: +82-51-510-2581. E-mail: ngk@pusan.ac.kr

\*\* Professor(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Tel: +82-51-510-2581. E-mail: kdi50@pusan.ac.kr

Standards(이하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 의무화 되었다. 이에 글로벌 유통기업들도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국제회계기준(IFRS)은 자본시장이 자유화가 됨에 따라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이하 IASC,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기업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의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표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은 역사적 원가주의(historical cost model)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하는데 반해, K-IFRS는 공정가치 평가측정이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업의 내재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정가치가 투자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보다 목적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데에 근거한다(Alexander and Archer, 2001; Coopers and Lybrand, 1993). 국제회계기준의 핵심적인 특징은 원칙주의와 실질가치반영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구체적 회계처리 방법의 제시보다 합리적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업이 보유하는 모든 금융자산, 부채의 가치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여 지나친 보수주의(conservatism)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보수주의적 회계처리의 정의는 비용의 발생이 예상될 때 즉시 인식하고, 수익은 보다 높은 검증가능성으로 인식을 이연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수주의로 회계처리 할 경우, 당기의 순이익 및 순자산이 과소계상되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왜곡된다. 이처럼 보수주의가 중립적인 회계처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회계처리에 따른 순이익의 질은 그렇지 않은 회계처리에 의한 순이익의 질보다 높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Peak and Lee, 2004). 그리고 투자자 및 채권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회계투명성을 나타내는 핵심적 개념으로 본다(Ball, 2000).

IFRS 도입효과 관련 국내외 연구들은 기업가치관련성, 보수주의 그리고 자본시장평가에 대한 검증 등 다양하게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실증연구 분석을 살펴보면 그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먼저 IFRS 도입 이후 회계의 질이 증가하였다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Hung and Subramanyam(2007)의 연구에서는 독일기업의 표본을 이용하여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도입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조건적 보수주의가 증가하는 약한 증거를 발견하였다. Barth et al.(2008)은 21개 국가를 대상으로 IAS 적용 전·후를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IAS 적용 후 보다 낮은 이익조정, 보다 적시에 손실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Kang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국내 조기도입을 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IFRS 도입 후 보수주의의 정도가 증가한다는 분석을 하였다. Lee and Hong(2013)은 IFRS를 조기 도입한 기업일수록 보수적 회계처리를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대로 IFRS 도입 후 회계의 질이 감소하였다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Piot et al.(2011)은 유럽 22개국이 IFRS 도입 후 조건적 보수주의가 감소하였고, IFRS와 기존 회계기준 간의 격차가 클수록 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hmed et al.(2013)은 IFRS 도입 후 회계이익의 질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Andre et al.(2013)은 IFRS 도입 이후의 조건적 보수주의가 감소했다고 연구하였다. Yun and Kim(2013)은 IFRS 의무적용 이후의 도입효과를 연구하였으며 보수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K-IFRS의 도입이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의무도입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실증분석 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 도입 5년째 되는 현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후 가설을 설정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끝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 2.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 2.1. 보수주의의 관련 선행연구

보수주의란 비용은 발생이 예상될 때 즉시 인식, 수익은 보다 높은 검증가능성을 요구하여 이연시키는 것을 말한다. Basu(1997)는 “악재(bad news)에 의한 손실을 호재(good news)에 의한 이득보다 빠르게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정도”로 보수주의를 정의하였다. Watts(2003)는 보수주의를 “손실에 비해 이익을 보다 엄격하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보수주의 회계처리를 적용한 결과로서 작성된 재무제표 정보는 투자자 및 채권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셈이지만, 재무제표 항목의 공정가치 표시라는 관점에서 보면 신뢰성과 목적적합성을 해치게 되어 재무보고의 유용성을 훼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Penman, S. 2001).

Feltham and Ohlson(1995)의 연구에서는 자산을 영업자산(operating assets) 및 재무자산(financial assets)으로 구분하고 보수적 회계처리는 영업자산에서 이루어지고 재무자산에서는 중립적 회계처리가 이루어진다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수주의 회계 하에서의 선형정보관계식은 초과영업이익과 순영업자산이 양(+)의 관계에 있으며, 가치평가식은 주가와 순영업자산 간에 양(+)의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Basu(1997)는 악재와 호재의 대응치로 주가수익률을 이용한 이익-주가수익률 모형을 제시하여 보수주의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순이익의 주식수익률에 대한 민감도는 음(-)의 주식수익률의 경우가 양(+)의 주식수익률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ivoly and Hayn(2000)는 미국의 1950년부터 1998년까지의 자료에 대해서 다양한 보수주의 측정치<sup>1)</sup>를 사용하여 보수주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수주의 회계처리 특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Khan and Watts(2009)는 기업 정보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투자주기가 길어질수록 보수적 회계처리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국내의 경우 Peak and Lee(2004)가 보수주의 회계처리 방법이 각 기업의 이익지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주식시장참여자에 의하여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상대적으로 보수주의 정도가 심한 경우의 순이익과 초과이익 및 초과영업이익의 지속성과 관련 추가배수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더 작게 나타났다. Choi and Jeon(2005)은 외환위기 전·후로 구분하여 Basu(1997)모델, Beaver and Ryan(2000)모델, 재정적발생액 모델을 이용하여 보수적 회계처리의 정도를 실증하였다. 연구결과 세 측정치 모두 외환위기 전보다 이후의 보수성이 높아졌다. Kang(2010)은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이 보수적 회계처리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감사품질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인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보수주의 회계처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2.2. 국제회계기준과 보수주의의 관련 선행연구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정보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IFRS도입에 따른 이익조정, 회계보수성, 가치관련성에 대한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Hung and Subramanyam(2007)는 1998-2002년의 기간을 대상

1) nonoperating accruals, timeliness, earnings distribution, market-to-book ratio

으로 하여 IA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80개의 독일기업을 표본을 이용하여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도입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건적 보수주의가 증가한다는 약한 증거를 발견하였다. Barth et al.(2008)는 IA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21개 국가의 1,896개 기업을 대상으로 IAS 적용 전·후를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IAS 적용 후 이익조정이 감소하고 손실인식이 보다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가에 대한 순이익과 자본의 가치관련성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반대로 IFRS 도입 후 회계의 질이 감소하였다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Piot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유럽 22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IFRS 도입이 보수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조건적 보수주의가 감소하였고, IFRS와 기존 회계기준 간의 격차가 클수록 보다 더 큰 양(+)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hmed et al(2013)는 2005년에 IFRS를 도입한 20개의 국가에 대한 회계이익의 질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익유연화와 발생액의 측정치가 더욱 크게 나타났으며, 보수주의적 회계처리는 더욱 감소하였다. Andre et al(2013)은 유럽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IFRS 도입 이후 보수주의에 미친 영향을 실증하였다. 연구결과 IFRS 도입 이후 조건적 보수주의가 감소했다고 하였다.

국내의 경우를 살펴보면, Kang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IFRS를 조기도입을 한 국내 기업 57개사를 대상으로 도입 후 보수주의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IFRS 도입한 이후 보수주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ee and Hong(2013)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IFRS 조기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IFRS를 조기 도입한 기업일수록 보다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한다는 분석을 하였다. 이와 반대로 Yun and Kim(2013)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IFRS 의무적용 이후의 도입효과를 연구하였으며 연구결과 보수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IFRS 도입과 보수주의의 관련성에 대한 일관된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의 경우 K-IFRS 도입이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Kang et al, 2012; Lee and Hong, 2013; Yun and Kim, 2013). 그러나 이들 연구도 IFRS 조기도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의무도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도입 초기의 "일시적 적응 현상"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Hellman, N. 2008).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 5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K-IFRS의 의무 도입 이전 이후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통제하지 못했던 도입 초기의 일시적 적응 현상을 통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2.3. 가설설정

본 연구는 K-IFRS의 도입이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하였다.

먼저 2007년부터 2014년을 대상으로 하여 K-IFRS 의무도입 이전 이후 보수주의 측정치를 비교하였다. 국내연구 경우, 조기적용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 국제회계기준 의무도입이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회계의 보수성을 분석한다는 의미가 있다.

K-IFRS는 자산, 부채에 대한 측정을 공정가치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회계기준원(2011)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는 보수주의 개념인 '신중성'을 삭제하여 지나친 보수주의를 지양한

다. 공정가치 측정은 역사적원가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라 볼 수 있으며, 역사적원가주의는 보수주의를 바탕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K-IFRS 도입으로 회계의 보수주의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의무 도입된 상황에서 이전기간과 이후기간 간의 회계보수주의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설1>을 설정한다.

<가설1> K-IFRS 의무도입으로 보수주의 정도가 약화될 것이다.

<가설1>을 통해 K-IFRS 의무도입으로 인한 전반적인 보수주의 변화에 대하여 확인한다. 이와 더불어 <가설2>에서는 "초기의 일시적 적응현상"을 통제한 후 보수주의 변화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K-IFRS의 적용에 따른 보수주의 변화는 의무 적용 전·후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시점은 정착 중인 시기이므로 초기 일시 적응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K-IFRS의 의무도입이 정부의 강제성으로 인한 것이므로 보수주의의 변화가 K-IFRS적용을 원인으로 한 '순수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환경으로 인한 영향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보수주의 관련 연구결과에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설2>에서는 "초기 일시적 적응현상"을 통제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2> K-IFRS 의무도입으로 인한 "초기 일시적 적응현상"이 보수주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K-IFRS 의무도입이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보수주의 측정치로 Givoly and Hayn(2000)의 음(-)의 비영업발생액을 사용한다.

$$CON_t = (-1) \times (TA_t - OA_t) / A_t$$

단,  $TA_t = t$ 년도 감가상각비 차감전 총발생액  
= 당기순이익 + 감가상각비 - 영업현금흐름

$OA_t = t$ 년도 영업발생액  
= (매출채권증가분 + 재고자산증가분 + 선급비용증가분)  
- (매입채무증가분 + 미지급법인세증가분)

$A_t = t$ 년도 총자산

비영업발생액에 음(-)의 부호를 사용한 이유는 발생액의 정의가 순이익에서 영업현금흐름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발생액이 적을수록 (음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순이익에 대한 보수주의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영업발생액이 큰 음(-)의 값을 가질수록 회계이익은 보수적으로 산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업발생액에 음(-)의 부호를 붙이고 이를 총자산으로 표준화하였다.

<가설1>과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CON_{i,t} = \beta_0 + \beta_1 IFRS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INV\_CYCLE_{i,t} + \beta_5 ROA_{i,t} + \beta_6 OWN_{i,t} + \beta_7 FOR_{i,t} + \sum ID + \sum YD + \epsilon$$

기업 *i*의 *t*연도에 대하여,  
 CON = Givoly and Hayn(2000)의 비영업발생액  
 IFRS = K-IFRS 의무도입 이전 0, 이후 1  
 SIZE = ln(총자산)  
 LEV = 부채비율  
 INV\_CYCLE =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 기초총자산  
 ROA = 총자산이익률  
 OWN = 대주주지분율  
 FOR = 외국인지분율  
 ID = 산업더미변수  
 YD = 연도더미변수

위 식에서 종속변수 CON은 기업-연도 별 보수주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Givoly and Hayn(2000)의 음(-)의 비영업발생액을 사용한다. IFRS는 K-IFRS 의무도입 이전과 이후를 나타내는 변수로 본 연구의 핵심변수이다. SIZE가 큰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정보비대칭성이 낮으며(Easley et al. 2002; Kim et al, 2013), 이는 보수주의에 대한 요구가 낮음을 의미한다. 부채비율은 높아질수록 채권자와 주주 사이의 대리인 갈등이 커지게 되고 이에 대한 보수적 회계처리의 필요성이 커지므로 LEV와 보수주의는 양(+)의 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Khan and Watts(2009)의 연구에서는 기업 투자주 기(INV\_CYCLE)가 길어지면 대리인비용이 증가하고 보수주의 정도가 커진다고 보고하였다. ROA는 기업의 성과가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며, OWN과 FOR은 기업지배구조를 통제한다. 또한 산업별, 연도별 차이점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산업더미와 연도 더미를 모형에 추가한다.

3.2. 표본설정

본 연구는 2007년~2014년의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제조·유통기업들 중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 ① 12월31일 결산기업
- ② 금융업 제외
- ③ 회계변수 값이 상하 1% 내에 속하지 않은 기업

재무자료는 TS2000(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추출하였다. 결산월이 12월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 한정된 후 분석함으로써 결산일 차이에 의한 영향을 통제하였다. 금융업의 경우 재무제표 양식과 계정과목 성격 등이 일반 제조업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총 5,697개의 기업-연도 샘플을 추출하였으며, 이 중 회계변수의 극단치 1% 및 결측치를 제외한 최종 기업-연도 표본은 <가설1>의 경우 4,412개, <가설2>의 경우 1,915개(2009년~2012년 제외)이다.

<Table 1> Distribution of the hypotheses by period

2007-2008	2009-2010	2011-2012	2013-2014
before the adoption of K-IFRS		after the adoption of K-IFRS	
Hypotheses1			
Without "the temporary adjustment phenomenon"		Hypotheses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Panel A. before the adoption of K-IFRS(2007~2010) & after the adoption of K-IFRS(2011~2014) [Hypotheses1]

Variables	N	Mean	Std	Min	Med	Max
CON	4,412	0.0194	0.1787	-4.1714	0.0198	2.1757
IFRS	4,412	0.5800	0.4940	0	1	1
SIZE	4,412	19.8375	1.5314	15.7770	19.5680	25.8235
LEV	4,412	1.2761	3.2415	0.0000	0.7574	115.0091
INV_CYCLE	4,412	0.0063	0.0164	0.0000	0.0025	0.3097
ROA	4,412	0.0423	0.0903	-2.7532	0.0395	0.5417
OWN	4,412	0.4274	0.1780	0.0000	0.4318	1.0000
FOR	4,412	0.0960	0.1374	0.0000	0.0338	0.8973

Panel B. before the adoption of K-IFRS(2007~2008) & after the adoption of K-IFRS(2013~2014) (without the temporary adjustment phenomenon) [Hypotheses2]

Variables	N	Mean	Std	Min	Med	Max
CON	1,915	0.0194	0.1889	-3.8704	0.0216	1.4902
IFRS	1,915	0.6800	0.4680	0	1	1
SIZE	1,915	19.8365	1.5431	15.7770	19.5673	25.8235
LEV	1,915	1.3992	4.2138	0.0000	0.7413	115.0091
INV_CYCLE	1,915	0.0065	0.0163	0.0000	0.0025	0.2565
ROA	1,915	0.0372	0.0964	-2.7532	0.0352	0.5417
OWN	1,915	0.4261	0.1783	0.0000	0.4291	0.9000
FOR	1,915	0.0993	0.1376	0.0000	0.0387	0.8973

## 4. 실증분석 결과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설2>에서 “초기 일시적 적응현상”을 통제할 경우 보다 타당한 연구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4.1. 기술통계량

분석에 사용된 주요변수들의 기술적 통계치는 <Table 2>에서 나타내고 있다. <Table 2> Panel A는 K-IFRS 의무도입 전·후 각 4년(총 8년)의 기업-연도 표본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Panel B는 “초기 일시적 적응현상”을 통제하기 위하여 의무도입(2011년) 이전 2년·이후 2년의 샘플을 제외한 기업-연도 표본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통계량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수성 측정치인 CON의 평균(중위수)은 Panel A가 0.0194(0.0198)을 보여주고 있으며 Panel B는 0.0194(0.0216)의 값을 보인다. K-IFRS의 의무도입 전·후를 나타내는 IFRS는 Panel A가 0.5800(1.0000)을 Panel B는 0.6800(1.0000)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총자산을 나타내는 SIZE는 Panel A가 19.8375(19.5690), Panel B는 19.8365(19.5673)을 나타내고 있다. 부채비율인 LEV는 Panel A가 1.2761(0.7574), Panel B는 1.3992(0.7413)으로 평균이 중위수보다 큰 비대칭적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Panel A와 Panel B 사이의 기술통계량

### 4.2. 상관관계 분석

<Table 3>는 본 연구의 변수들 간의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이다. <Table 3> Panel A는 K-IFRS 의무도입 전·후 각 4년(총 8년)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Panel B는 “초기 일시적 적응현상”을 통제하기 위하여 의무도입(2011년) 이전 2년·이후 2년의 샘플을 제외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K-IFRS 의무도입이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본 연구의 실험변수인 IFRS는 CON과 유의한 상관계수를 보이지 않는다. 종속변수 CON과 다른 통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Panel A의 경우 LEV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을 가지고 있으나 ROA, OWN, FOR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nel B의 경우 LEV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을 가지고 있으나, FOR이 10% 수준의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3> Correlations

Panel A. before the adoption of K-IFRS(2007~2010) & after the adoption of K-IFRS(2011~2014) [Hypotheses1]

	CON	IFRS	SIZE	LEV	INV_CYCLE	ROA	OWN	FOR
CON	1.000							
IFRS	.014	1.000						
SIZE	-.013	.063***	1.000					
LEV	.110***	.020*	.095***	1.000				
INV_CYCLE	-.001	-.040***	.093***	-.002	1.000			
ROA	-.114***	-.108***	.136***	-.116***	.035**	1.000		
OWN	-.053***	.063***	-.072***	-.070***	-.101***	.037***	1.000	
FOR	-.029**	.019	.465***	-.073***	.108***	.176***	-.101***	1.000

Note1) \*, \*\* and \*\*\*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10$ ,  $p < 0.05$ , and  $p < 0.01$

Note2) N = 4,412

Panel B. before the adoption of K-IFRS(2007~2008)& after the adoption of K-IFRS(2013~2014) (without the temporary adjustment phenomenon) [Hypotheses2]

	CON	IFRS	SIZE	LEV	INV_CYCLE	ROA	OWN	FOR
CON	1.000							
IFRS	.016	1.000						
SIZE	.003	.087***	1.000					
LEV	.093***	.010	.090***	1.000				
INV_CYCLE	.019	-.061***	.114***	-.006	1.000			
ROA	.011	-.111***	.128***	-.056***	.037	1.000		
OWN	-.023	.100***	-.069***	-.047**	-.085***	.028	1.000	
FOR	-.031*	.015	.452***	-.075***	.115***	.159***	-.094***	1.000

Note1) \*, \*\* and \*\*\*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10$ ,  $p < 0.05$ , and  $p < 0.01$

Note2) N = 1,915

**<Table 4>** The effect of K-IFRS on conservatism

Variables	[Hypotheses 1]			[Hypotheses 2]		
	Regression coefficient	t-value	Significant Level	Regression coefficient	t-value	Significant Level
(Intercept)	.057	1.429	.153	-.033	-.510	.610
IFRS	-.006	-.554	.580	-.135	-2.382**	.017
SIZE	-.001	-.599	.549	.000	.034	.973
LEV	.005	6.328***	.000	.004	3.865***	.000
INV_CYCLE	-.003	-.018	.985	.261	.979	.328
ROA	-.193	-6.343***	.000	.046	1.004	.316
OWN	-.045	-2.956***	.003	-.025	-1.038	.299
FOR	-.006	-.263	.792	-.046	-1.281	.200
F-value	13.883***			3.486***		
adj $R^2$	0.023			0.010		
N	4,412			1,915		

Note1) \*, \*\* and \*\*\*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10$ ,  $p < 0.05$ , and  $p < 0.01$

### 4.3. 회귀분석 결과

<Table 4>은 K-IFRS의 의무도입이 회계의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가설1>에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IFRS와 CON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의 의무도입이 회계의 보수주의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가설2>에서는 “초기 일시적 적응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해당기간(도입 전 2년: 2009년, 2010년 ~ 도입 후 2년: 2011년, 2012년)을 통제하여 분석하였으며 IFRS의 회귀계수가  $-0.135$ (5% 유의수준)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초기 일시적 적응현상”이 회계의 보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기타 통제변수와 CON과의 관계를 보면 LEV(부채비율)이 CON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보다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5. 결론 및 시사점

2011년부터 의무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는 자산, 부채에 대한 측정을 공정가치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공정가치 측정은 역사적원가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라 볼 수 있으며, 역사적원가주의는 보수주의를 바탕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K-IFRS 도입으로 유통기업들의 회계 보수주의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K-IFRS가 의무도입 된 이후 보수주의 관련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K-IFRS 의무도입 시 “초기 일시적 적응현상”으로 인하여 분석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IFRS의 의무도입이 회계의 보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과 동시에 “초기 일시적 적응현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07년부터 2014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도입(2011년)은 회계의 보수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일시적 적응현상”으로 인하여 분석결과가 희석(왜곡)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번째 가설에 대한 분석을 하였

으며 “초기 일시적 적응현상”을 통제하기 위하여 조기도입(2009년) 시점부터 의무도입(2011년) 이 후 2년을 나타내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를 제거한 후 분석한 결과, K-IFRS의 도입이 회계의 보수주의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FRS의 의무도입이 회계의 보수주의를 약화시킨 것을 의미하며 Yun and Kim(2013)과 그 결과가 일치한 것을 나타낸다. 또한 회계처리에서 “초기 일시적 적응현상”이 보수주의 결과에 왜곡을 가져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K-IFRS의 의무도입이 회계의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초기 일시적 적응현상”을 실증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 더불어 K-IFRS의 의무도입이 보수주의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하면서 선행연구에 추가되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K-IFRS의 의무도입 이후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들은 K-IFRS 도입으로 인하여 회계정보의 보수성이 약화된 점을 고려하여 회계정보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당국 또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회계의 질 대용치로 회계의 보수성만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나 향후 다른 측정치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 References

- Ahmed, A., & Duellman, S. (2013). Managerial Overconfidence and Accounting Conservatism.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51(1), 1-30
- Alexander, D., & Archer, S. (2001). *European accounting guide*(4th ed). NY: Aspen Law & Business Gaithersbury.
- Andre, P., Filip, A., & Paugam, L. (2013). Impact of Mandatory IFRS Adoption on Conditional Conservatism in Europe. *Working paper*, ESSEC Business School.
- Ball, R., Kothari, S., P., & Robin, A. (2000). The effect of international institutional factors on properties of accounting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9, 1-51
- Barth, M. E., Lansman, W. R., & Lang, M. H. (2008).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Accounting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6(3), 467-498
- Basu, S. (1997). The Conservatism Principle and the Asymmetric Timeliness of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4, 3-37
- Beaver, W., & Ryan, S. (2000). Biases and Lags in Book Value and Their Effects on the Ability of the Book-to-Market Ratio to Predict Book Return on Equ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8, 127-148
- Choi, Hyun-dol, & Yoon, Jae-won (2006). The Effects of Corporate Governance on Conservative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Korean Accounting Review*, 31(4), 145-174
- Choi, Kwan, & Jeon, Sung-il (2005). Korean Economic Crisis and Conservative Accounting. *Korean Accounting Review*, 30(3), 215-242
- Coopers, & Lybrand (1993). *International accounting summaries: A guide for international and comparison*(2nd ed). Wiley. NY
- Feltham, J., & Ohlson, J. (1995). Valuation and Clean Surplus for Operating and Financial Activiti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1, 689-731
- Givoly, D., & Hayn, C. (2000). The Change Time-series Properties, Cash Flows and Accruals : Has Financial Reporting Become More Conservativ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9, 287-320
- Hellman, N. (2008). Accounting conservatism under IFRS. *Accounting in Europe*, 5, 71-100
- Hung, M., & Subramanyam, K. (2007). Financial statement effects of adopting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 The case of Germany.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12(4), 623-657
- Kang, Joo-hun (2010). Corporate Governance and Conservative Accounting. *The Korean Academy of Business Historians*, 54, 197-213
- Kang, Min-jung, Lee, Ho-Young, & Lee, Kyoung-Hwa (2012). The Impact of IFRS Adoption on Accounting Conservatism: Analysis of the Firms Applying IFRS Early. *Korean Accounting Review*, 37(2), 237-278
- Khan, M., & Watts, R. L. (2009). Estimation and Empirical Properties of a Firm-Year Measure of Accounting Conservatism.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8(2-3), 132-150
- Kim, Myung-in, Jeong, Min-gyung, & Sonu, Catherine Heyjung (2013). The Effect of Abnormal Audit Fees and Non-Audit Fees on Accounting Conservatism – Focusing on the Model of Khan and Watts(2009).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49, 173-200
- Lee, Kyun-bong, Ryu, Ye-rin, & Ji, Sang-hyun (2012). The effect of the Investor Relation on Conservatism in Accounting.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44, 109-134
- Lee, You-sik, & Hong, Jung-hwa (2013). A Study on the K-IFRS Adoption and Quality of Earnings : Comparing the Early & the Mandatory K-IFRS Adoption Corporation.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47, 197-228
- Paek, Won-sun, & Lee, Soo-ro (2004). Conservatism, Earnings Persistence and Equity Valuation. *Korean Accounting Review*, 29(1), 1-27
- Penman, S. (2001).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and Security Valuation*. NY: McGraw-Hill.
- Piot, C., Dumontier, P., & Janin, R. (2011). IFRS Consequences on Accounting Conservatism within Europe: The Role of Big 4 Auditor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Grenoble and CERAG-CNRS
- Watts, R. L. (2003). Conservatism in Accounting Part I : Explanations and Implications. *Accounting Horizons*, 17(3), 207-221
- Yun, Jung-boon, & Kim, Sung-hwan (2013). The Effect of IFRS Adoption on Conservatism : Comparison between Voluntary Adoption and Mandatory Adoption. *Korea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8(4), 159-181.